

수해·코로나에 '민주당 전대' 흥행 비상

이낙연 2주 자가격리 여파 100분 토론회 취소 등 일정 차질 김부겸·박주민, 연설회 등 추격 기회 제약에 선거운동 난관

더불어민주당의 8·29 전당대회가 수해와 코로나19 등 외부 악재 탓에 흥행 부진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낙연 당 대표 후보가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2주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선거운동 방식은 물론 전대 당일 계획 변경까지 논의되는 상황이다.

이 후보는 자택을 벗어나지 못한 채 선거운동을 이어가야 하고, 김부겸, 박주민 후보는 연설회 등 추격 기회가 제약되는 난관에 봉착했다.

이에 김부겸 후보는 20일 전당대회 선거 일정 중지를 요청했다.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지만 이낙연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가격리 생활에 근황을 올렸다. 자택에서 통화하는 본인 사진과 아파트 베란다에서 보이는 풍경 사진도 함께 올렸다. 그는 "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주신다"며 "저는 오랜만에 쉴 수 있는 덕분에 매우 편안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자택에 머물며 중간이 소식을 전하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는 정도만 선거운동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저녁 예정됐던 MBC '100분 토론회' 일정을 취소했다.

예초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화상 토론으로 진행하려고 했지만 이 후보가 자가격리로 화상 토론마저 불가능해져 나머지 두 후보의 양해를 구해 이같이 결정된 것이다.

김부겸 후보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인이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당에서 논의하겠지만 다른 일정 같은 것은 진행하기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이 최우선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난감한 것은 사실"이라며 "컨벤션 효과를 살리지 못하면 당으로서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선거운동을 보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 캠프의 김택수·박양숙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낙연 후보가 방역 당

국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오늘부터 2주간 자가격리 결정을 받으면서 상호 TV 토론, 대의원대회 후보자 연설 등 가장 중요한 선거운동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대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원과 국민의 알 권리"라며 "당대표에 도전하는 세 후보 모두 공정하게 자신을 알릴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자가격리 중인 이 후보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후보는 SNS 선거운동을 한층 활

발히 벌이는 모습이다. 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 운영 비전을 담은 14분 분량의 동영상 올렸다. 박 후보는 "당원 중심의 개혁과제 해결을 넘어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해왔던 여러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는 청사진을 그려내겠다"며 "힘과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의 자가격리 기간은 오는 31일 정오까지로, 29일 전대 행사에 직접 나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야, 원내대표 회동 주역 인사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 9월 정기국회 개원 합의

국회 코로나19 대응팀·윤리특위 등 구성기로

여야는 20일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포함한 현안에 합의했다. 윤리특별위원회를 비롯한 5개 국회 특위 구성에도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비롯한 원내 현안에 합의했다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여야는 오는 9월 1일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개원식을 열기로 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순으로 이어지는 의사일정의 구체적인 날짜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의할 예정이다. 또 9월 중에는 본회의를 열어 민생과 관련된 주요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5

명, 통합당 5명,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비교섭단체 의원 각 1명 등 여야 동수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최다선의 의원이 맡는다.

이에 따라 박 의장이 요청한 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 여야가 각각 요구하는 균형발전 특위와 에너지 특위, 저출산대책 특위에 대한 후속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후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합의했다. 이번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고, 다음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특위를 꾸릴 때는 통합당에서 임명하기로 정했다.

여야는 또 국회사무처와 함께 코로나19 대응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대응팀은 국회 차원의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사후 조치를 맡게 된다. /오광록 기자 kroh@

민주, 코로나 확산 통합당 책임론

김태년 "보수단체 집회 감염 뇌관"...조정식 "전광훈과 한 몸"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진영의 광화문 집회 참가자 코로나 19 집단 감염 사태를 놓고 미래통합당을 향한 재확산 책임론에 거듭 불을 지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상황은 지난봄 신천지 사태 이상으로 엄중하다"며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가 전국적인 감염 확산의 뇌관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집회가 끝난 지 5일이 지났는데, 통합당은 집회에 참가한 소속 정치인과 당원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 식으로 수수방관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며 "통합당이 방역에 협조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극우 개신교 세력이 세를 확장하는 데 있어 통합당

이 지방분권을 제공했다"며 "전광훈 목사와 통합당 일각이 한 몸이 돼 움직인 셈으로, 통합당은 꼬리자르기에 급급할 게 아니다"라며 협조를 촉구했다.

이상호 의원은 tbs 라디오 '김여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통합당 홍문표 의원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이 아니'고 상경한 지역구민을 만난 것뿐'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어이없는 꼬리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집회 당일인) 15일 사진을 보니 홍문표 의원은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진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마스크도 벗었는데, 그곳은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인 장소"라며 "보건소에 가서 얼른 검사받으라"고 꼬집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김종인 "통합당 변화 첫 걸음은 치열한 반성"

5·18 묘지 사죄 의미 밝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통합당이 혁신하고 변화하는 첫 걸음은 치열한 반성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자신이 전날 광주 5·18 국립묘지를 방문해 무릎 꿇고 사죄한 데 대해 "역사의 매듭을 풀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늙은 이념 대립은 발바닥에 박힌 가시와 같이 미래로 향한 여정에 걸림돌

이 된다"며 "과거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서서히 풀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이틀간 대구와 광주를 가 보니 당을 대표해 지역 주민께 사과드리고 반성하는 일이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을 알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경제, 코로나, 안보의 총체적 난국에도 과거사를 외곽해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국력을 낭비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게 한심하다"며 "어려운 시기 일수록 단합된 힘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여야 '부동산 정책·행정수도 이전' 충돌

1차 정당정책토론회...임대차3법·세제 강화법 놓고 설전 균형 발전·수도권 과밀화 해소 위해 '행정수도 이전' 찬반

여야는 20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1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과 행정수도 이전을 주제로 공방을 벌였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부동산 가격 폭등, 너무 잦은 대책으로 혼란과 우려가 있음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속세를 푸는 중이다. 이 시점에서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은 이르다"고 말했

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정책위 부의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진단과 해법이 모두 틀렸다"며 "집권여당이 거대 여당의 힘으로 임대차3법과 부동산 세제 강화법을 통과시킨 이후 집 거래는 더욱 위축되고 전세값이 폭등하고, 전세 매물도 자취를 감췄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

부의 부동산정책은 김현미 부동산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정선만 승리했고 시장에서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민생당 이수봉 대표는 "애드립만 하는 정책은 실패한다. 암환자에게 소화제 투여하는 꼴"이라고 했고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도 "청년들은 내집 마련을 포기한 지 오래됐다"고 주장했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국가균형발전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필요

성을 강조했다.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강 의원은 최근 세종시의 집값이 폭등했다는 지적에 대해 "실제로 살고 있는데, 호기만 있을 뿐 실제 거래는 없다"고 반박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수도권이 국가 자원을 모조리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며 "국가 균형발전과 과밀화 해소를 위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의장은 "행정수도 이전은 부동산 정책 실패 비난이 강하니까 (여당이) 국면 전환용으로 꺼낸 것"이라며 "대통령도 세종시로 이동할 의지가 있다면 광화문 청사 이전으로 위망업을 하고, 진정성을 확인한 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상승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참고하세요

알고계시나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 고금리 대출을 3.1%~8.15%로 대체해 드리는 815 대출
- 다주택 보유에 가중세 2.4%~4.4%를 적용해 임대차 3법
- 지역경제활성화 지원금: 지역경제활성화 지원금 (연간 100만 원)
- 지역별 소상공인 경영지원금: 소상공인 경영지원금 (연간 100만 원)
- 3~4억 원 이하 소상공인 위자금을 무이자 대출
- 50세 이상 초장년 소상공인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연간 100만 원)

평생 어부바 신협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 | | | | | |
|---------------|---------------|---------------|----------------|---------------|---------------|
| 문흥지점 266-4150 | 양산지점 573-4150 | 운암지점 528-4150 | 운암산지점 513-4150 | 매곡지점 572-4150 | 첨단지점 576-4150 |
|---------------|---------------|---------------|----------------|---------------|---------------|